

2021 년 2 월 8 일

중학교 가족 여러분께:

여러분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. 뉴욕시 중학교들은 2 월 25 일 목요일부터 재개방되어 대면 수업이 실시됩니다.

이번 학년도 시작부터, 자녀가 직접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 받는 것을 원하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. 이제 6, 7, 8 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 건물들을 재개방하여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동시에 헌신적인 우리 교사진으로부터 교육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.

저희는 학교 커뮤니티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동시에 학생들의 대면수업 시간을 최대화하는 강력한 실행방식을 개발하였습니다. 다음은 자녀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개시될 때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:

매주 COVID-19 테스트 및 필수 동의

- 모든 학교에서는 매주 학생과 교직원의 20%를 대상으로 무작위 테스트를 실시할 것입니다.
-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대면수업이 개시되는 첫 날까지 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대면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동의서는 자녀의 첫 대면수업 시작일 이전에 NYC 학교 계정 mystudent.nyc 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.

이미 NYCSA 계정이 있고, 자녀(들)이 링크되어 있다면:

- 로그인 후 자녀의 이름을 클릭하고, “계정 관리(Manage Account)”를 클릭한 후 드롭다운 메뉴에서 “동의서 양식(Consent Forms)”을 선택 하십시오.
- 해당 페이지를 읽어 보시고, 마지막에 있는 동의 옵션을 선택하십시오.

아직 NYCSA 계정이 없는 경우:

- 바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! 학교에서 받은 계정 생성 코드를 갖고 계신 경우, 5 분도 걸리지 않아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, 위에 설명한 대로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학교에서 받은 계정 생성 코드가 없더라도 “COVID-19 테스트(Testing)” 아래의 “동의 관리(Manage Consent)”를 클릭하신 후 귀하와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를 제공하시면 됩니다.
- 또한 본 가정통신문에 첨부된 동의서 양식을 인쇄하여 작성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.
-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즉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.**

선호 수업방식 & 대면 수업 일정

금학년도 시작 전이나 11 월 변경 기간 동안 자녀의 선호 수업방식을 혼합식으로 선택한 가정에서는 곧 학교에서 수업 일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.

전에 혼합 수업을 선택하였으나, 전면 원격 수업을 계속하고 싶은 분은 되도록 빨리 <https://www.nycenet.edu/surveys/learningpreference> 에서 선호 방식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

출석

혼합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대면 수업을 위해 등교해야 합니다. 귀 자녀가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연락할 것이며, 잦은 결석이 지속되면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. 이렇게 해야만 각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을 위해 출석하는 학생들의 대면 수업일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.

여행할 경우

최근 뉴욕주를 벗어나 주에서 지정한 여행 경고 지역에 여행한 학생이나 교직원 은 반드시 10 일간 자가 격리를 하거나, 주 지침에 따라 테스트를 받아야만 10 일 자가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상세한 지침은 <https://coronavirus.health.ny.gov/covid-19-travel-advisory> 에 있습니다.

- DOE 학생들은 시 전역에 있는 H+H 테스트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테스트 받을 수 있습니다. 테스트 장소 목록: <https://www.schools.nyc.gov/school-year-20-21/return-to-school-2020/health-and-safety/covid-19-testing>.

여러분 자녀가 어디에서 수업을 받게 되든지, 저희는 강력하고 지원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희는 여러분 자녀에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. 혼합이든 원격 수업이든, 학생들을 향한 저희의 헌신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.

감사합니다.



리처드 A. 카란자
뉴욕시 교육감